

충전재를 강제로 주입해 다지고, 암각화 반대편은 땅을 파서 새로운 물길을 조성해야 해 환경이 변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화재위원회는 심의 이후 “생태제방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역사문화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암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생태제방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두 번 모두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로 부결됐다.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세 번째 도전에서도 부결된 제방 축조 안은 사실상 퇴출당하게 됐다.

■ 동화사 지장시왕도 · 이선제 묘지 · 강노 초상 고국 품으로

해외에 있던 우리 문화재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88년 8월 5일 대구 동화사 염불암에서 도난당한 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를 찾아왔다. 지장시왕도는 2014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LA카운티박물관의 한국 문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알려졌다.

조계종은 1999년 발행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이 불화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LA카운티박물관에 환수를 공식 요청했다.



▲ 7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 반환식에서 동화사 주지인 호광 스님(오른쪽)과 마이클 고반 LA카운티박물관 관장이 기증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 밀매단이 1998년 6월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던 조선 묘지(墓誌·망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묻은 돌이나 도판)를 환수했다. 조선 전기 문신인 이선제의 묘지로 높이 28.7cm, 장폭 25.4cm이며 단종 2년(1454)에 삼강 기법으로 만들어진 분청사기다.

명문(銘文)은 묘지의 앞면과 뒷면, 측면에 248자가 있고,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래 소장자인 도도로키 구니에(等等力 邦枝, 76) 씨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이선제 묘지가 도난품임을 알리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무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김홍도와 신위의 스승이자 시·서·화에 능해 삼절(三絶)로 일컬어진 표암(豹菴) 강세황(1713~1791년)의 증손자인 강노(1809~1886년)를 그린 초상화를 미국에서 들여오기도 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강노 초상

화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오면서 강세황 부친 강현(1650~1733년)부터 강세황, 강인(1729~1791년), 강이오(1788~?), 강노까지 진주 강씨 5대 초상화가 모이게 됐다.

■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산

조선시대부터 600여 년간 서울을 감싸 안고 있는 성곽인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등재에 실패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COMOS, 이코모스)는 3월 초 14명으로 구성된 패널 심사에서 한양도성에 대해 ‘등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하려는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며, ‘등재 불가’를 받으면 등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등재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1995년 주민들이 등재를 반대했던 ‘설악산 자연보호구역’과 2009년 ‘등재 불가’ 판정을 받은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을 포함하면 네 번째 자진 철회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코모스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한국의 서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등재를 추진하던 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라는 본선 문턱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관광

■ 개요

2017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333만5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국내 관광시장의 큰손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방문의 급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한국관광공사는 분석했다.

2017년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416만9천353명으로 전년보다 48.3% 감소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3~12월을 보면 301만3천320명이 입국해 2016년 같은 기간의 699만9천333명에 비해 56.9%나 줄어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반대로 2017년에 출국한 국민은 전년보다 18.4% 증가한 2천649만6천44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출국 내국인이 입국 외국인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 사드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22.7%↓·해외여행객 2천650만명 사상 최대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2016년보다 22.7% 줄어든 1천334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이 금한령으로 48.3% 감소한 417만 명에 그쳤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중국 크루즈선 근무 승무원 비율이 높은 인도(-37.0%), 인도네시아(-21.9%), 필리핀(-19.4%) 입국객

도 줄었다. 연초에 증가세를 보였던 일본(0.6%), 미국(0.3%), 캐나다(0.3%)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전 이슈로 5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6년과 차이가 없었다. 영국(-6.7%), 독일(-0.4%)은 감소했다. 반면 베트남(29.2%) 등 동남아시아와 대만(11.1%), 러시아(15.6%), 몽골(31.3%), 카자흐스탄(30.6%) 등 중앙아시아 관광객은 크게 늘었다.

지역·국가별 방한 관광객 비중은 다변화 노력의 결과로 아시아·중동 지역이 2016년 25%에서 2017년 33%로 상승해 중국(31%)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2017년 출국한 국민은 2016년보다 18.4% 증가한 2천649만6천44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출국 내국인이 입국 외국인인 두 배 가까이 이른다.

전효식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은 “2017년은 사드, 북핵 등 여파로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해였지만, 사드를 계기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해 나아가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관광수지 적자 14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2017년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관광수입은 133억2천370만 달러로 2016년보다 2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광지출은 270억7천290만 달러로 1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폭은 137억4천920만 달러를 기록해 2016년보다 111.9% 증가했다. 이를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14조7천600억원 상당이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관광수지는 2001년 이후 17번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 2017년 중국 제외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 25% 증가

2017년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방한한 인센티브(기업 포상) 관광객 수는 18만3천307명으로 2016년의 14만6천867명보다 24.8% 늘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전체 인센티브 관광객은 20만586명으로 2016년의 27만277명보다 25.8%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2016년보다 90.5% 늘어난 5만6천246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필리핀도 128.7% 늘어난 4천855명, 말레이시아는 27.3% 늘어 동남아 시장의 증가 폭이 컸다. 그동안 인센티브 관광객이 적었던 인도(387.4%), 미얀마(284.4%), 터키(92.2%), 러시아(38.9%)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인센티브 관광객은 86.0% 줄었다.

■ 사드 여파로 2017년 방일 한국인 첫 700만명 돌파... 40% 급증

2017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7년 방일 한국인 여행자는 714만200명으로 2016년의 509만302명에 비해 40.3% 증가했다. 이는 전체 방일 외국인 중 유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방일 한국인 관광객의 상승 폭은 전체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이 같은 현상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 탓에 한국인들이 중국 대신 일본에 많이 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베이징(北京)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비공식 통계를 인용해 2017년 방중 한국인은 452만 명으로 2016년 519만 명에 비해 13%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을 완화해 주고 면세 혜택을 주는 점도 한국인이 일본을 많이 방문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7년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2천869만900명으로 2016년의 2천403만9천700명보다 19.3% 증가했다. 방일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637만3천564명에서 2017년 735만5천800명으로 15.4%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3월 이전만 해도 중국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은 관광지였지만 중국의 금한령으로 일부 중국인 사이에서 반한감정이 퍼졌고 반작용으로 우리 국민이 중국 대신 일본을 많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 사상 유례없는 10일짜리 추석 황금연휴...국내의 여행 급증

2017년 추석은 사상 유례없는 열흘짜리 황금연휴(9월 30일~10월 9일)로 해외 출국자가 2016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연휴 출국자는 102만 명으로 2016년 추석(32만2천206명)보다 3.1배 늘었다.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출국자 수를 보면, 2011년 29만245명에서 2017년 129만5천604명으로 6년 만에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 하루 평균 출국자 수는 2011년 3만2천249명에서 2017년에는 9만2천543명으로 2.8배 늘었다.

2017년 추석 황금연휴이자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인 9월 30일~10월 9일 국내 여행 총량은 2016년 추석 연휴에 비해 60%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장객 통계를 관리하는 관광지에 대한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10일간의 방문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객 수 상위 지점 108곳의 총 방문객 수는 887만1천298명으로 전년 추석 연휴(2016년 9월 10~19일)보다 59.6% 늘어났다. 이 중 유료관광지 48곳의 입장객은 392만2천86명으로 168% 증가했다.



▲ 추석을 이틀 앞둔 10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13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는 2016년보다 62.44% 늘었다. 경주보문단지과 가까운 국립경주박물관 관람객이 318,333%,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열리는 진주의 국립진주박물관이 249,110명 증가하는 등 대도시보다 유명 관광지과 가깝거나 연휴 기간에 축제가 있는 중소도시의 박물관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3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관람객 수는 335,311명, 국립공원 19개의 추석 연휴 3일(10월 3~5일) 탐방객 수는 42,688명 증가했다. 6개 주요 유원시설(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월드, 경주월드, 오션파크천안) 방문객은 41,344% 늘어났다.

패션

■ 개요

2017년 패션계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 2.4%에 이어 2017년에도 2.1%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들은 성장률 부진에서 탈피하기 위해 브랜드 구조조정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섰고, 다양한 사업변화를 추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18년에는 경기가 회복돼 패션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다.

■ 패션업계 2017년 실적 ‘먹구름’…업체 간 희비

국내 주요 패션 기업들의 2017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구호·르베이지 등을 운영하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017년 매출이 1조7천496억원으로 2016년 대비 5.1% 감소했다.

3분기에는 영업적자가 130억원에 달했으나 브랜드 효율화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연간 3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타임·시스템 등을 보유한 한섬은 2017년 영업이익이 2016년보다 23.2% 줄어든 55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1조2천287억원으로 72.6%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437억원으로 22.6% 줄었다. 한섬은 SK네트웍스 패션부문 인수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도 2017년 매출은 1조1천25억원으로 2016년 대비 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54억원으로 오히려 5.9% 감소했다. 신사업 투자(남성복 확대 등)와 브랜드 구조조정(바나나 리퍼블릭)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블랙야크, K2 등 대다수 아웃도어 브랜드는 트렌드 변화 등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업계 1~2위를 고수하던 코오롱 FnC는 매출·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3위 이하로 밀렸다. 네파는 세컨드브랜드인 ‘이젠빅’을 접었다.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트린 업체도 있다. 힐라코리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6년 대비 162%, 1천741% 증가한 2조5천302억원, 2천79억원을 기록했다. 로고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2016년 9월 출시된 ‘코트디리크스’ 신발이 총 100만 켤레 판매되는 등 선전했다.

LF는 2017년 매출이 1조602억원으로 2016년 대비 4.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천101억원, 당기순이익은 704억원으로 각각 39.4%, 37.6% 늘었다.

■ 브랜드 지각변동…SK네트웍스, 한섬에 인수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 브랜드인 한섬은 2017년 초 3천억원에 SK네트웍스의 패션부문을 인수해 오즈세컨, 오브제 등 총 12개 국내·수입 브랜드를 추가 운영한다.

한섬은 SK네트웍스 자체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상품 라인을 다각화하는 등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내 및 수입브랜드의 구조조정도 진행됐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7년 하반기에 론칭이 예정됐던 핸드백 사업을 재검토 중이고, 수입브랜드인 바나나 리퍼블릭 사업을 8월에 접었다. 대신 보보·지컷 등 국내 브랜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LF는 남성복 브랜드 타운젠트의 영업은 중단했지만, 헤지스, 질스투어트스포츠, 마에스트로 등 주력 브랜드의 영업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랜드는 2017년 1월 티니위니를 중국 업체에 매각했고, 부채 비율을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하 브랜드 매각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패션 외에 다른 분야로의 사업 확장도 서두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미용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LF는 자회사인 LF푸드를 통해 식자재 유통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2017년 패션업계 수치는 별로…2018년에는 성장 전망

한국섬유연합회는 2017년 패션 시장 규모가 43조원으로 2016년 대비 0.3%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패션연구소 또한 2017년 패션시장이 2.1%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추정했다.

다만 2017년 연말부터 점차 소비가 활성화돼 2018년 패션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롱패딩의 인기는 침체했던 패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패션시장의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온라인 패션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이었지만, 2017년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이미 9조3천억원대를 기록했다.

주요 패션 채널인 백화점의 매출 비중은 2012년 78.6%에서 2017년 3분기에 70%로 하락했다. 새로 개점하는 복합쇼핑몰 내에서도 패션 매장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업체들은 이런 온라인 강제 추세에 맞춰 상품을 기획·마케팅하고, 관련 결제·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2018년에도 해외 진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시스템·시스템웜, 헤지스, 준지 등 패션브랜드들은 중국 등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패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등에도 잇따라 진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내수시장이 2017년보다 좋아진다는 전망이 많다.”면서 “업체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시장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